

# “깨달음의 여정은 고귀한 노동”

“바라본이내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밭은 존중, 고행은 비이며, 지에는 내 명예가 오며, 부끄러움은 경이 자루, 의지는 장애는 줄, 생각은 내 호미 날과 작대기입니다.” (숫타니파타)

아직도 '불교는 가난히 살아야 도나 닦는 현실 도피적 종교' 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없진 않겠지만 많지도 않을 것이다. 현대 첨단 과학 사회에서 노동의 일반적 개념이 '밭 갈고 씨 뿌리는' 것에서 정신노동으로까지 포괄적으로 확대된 만큼 수행과 전법도 모두 노동의 범주에서 이해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불교와 노동의 관계를 명료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불교는 활발한 노동의 종교다.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원력은 철저한 '행위'를 통해 구체화 된다.

생활이 곧 수행이고 그 속에 전개되는 모든 활동이 고귀한 노동이다. 올바른 불자에게 있어 삶은 노동이고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이다. <노동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는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가) 전 개하는 구국구세운동의 두 번째 테마다. 노동, 불교에 그 가치를



**노동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송암지원 역음  
도피안사 펴냄 | 1만5000원

## 안성 도피안사 구국구세운동 2번째 테마 월암 스님 '선종의 노동문제' 등 게재

문는 자세는 매우 숭고하다. 서울대 박세일 교수는 '우리는 일을 통해 성불한다'고 강조한다.

前 동국대 교수 호진 스님은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일체의 행위를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향한 노동으로 규명한다. 거기에 부와 분배에 대한 연거푸 가치를 이해하는 '코드'가 존재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영조 교수의 '노동에서 장엄으로' 월암스님(백송사의 '선종의 노동문제' 부천대 김광식 교수의 '용성선사의 선종불교' 불명사 주지 학승 스님의 '세계화와 직업윤리' 동방대 김재영 교수의 '광덕 스님의 반야행원사상과 노동관' 신경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의 '노동과 불교적 인 정신건강' 등이 실렸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소통과 치유를 위한 '진혼곡'

## 청영

이대훈 지음  
실천문학사 펴냄 | 9800원



## 보림사가 위치한 전남 장흥군 배경 서민의 역사적 갈등과 화해 그려내

담 건설 후보지인 전남 장흥군 유치면 일대는 산 좋고 물 맑고 들이 넓어 사람 사는 장소로는 최고의 땅이다.

특히 중국·인도·한국에 있는 동양 3보림 중의 하나이며, 선종이 우리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와 정착돼 현재 조계종 뿐 아니라 한국불교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가 지산 보림사가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유치지역은 지난 100여 년간 사람 노릇하고 살기가 힘든 곳이었다. 1894년 일어난 갑오농민전쟁 당시, 유치면이 포함된 장흥군 일대는 농민군의 최후 격전 지였다.

또 오십 년 이상 된 집이 한 채도 없었을 정도로 한국 전쟁 당시 군경 및 빨치산들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

은 지역이었다.

1994년 <장작과비명>과 1999년 <작가세계>에 각각 시와 소설이 당선되어 등단한 이대훈씨(본지 객원기자)가 출간한 첫 장편소설인 <청영(靑櫻)>은 수몰된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사실적인 사건을 빌려 쓴 작품이다.

첫머리 새봄의 역동적 풍광을 생생하게 묘사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양상을 미리 짐작하게 하고 있는 <청영(靑櫻)>은 마을 사람들의 참예한 갈등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사실과 허구의 역학을 잘 조율함으로써 사투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제시한다.

특히 근현대사에서 비극적 역사 한가운데에 있었던 전남 장흥군과 유치면을 주요 배경으로 삼아 이야기 자체의 외연을 확장했다.

이념적 대립의 희생양이 되어 안정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마을사람들의 고통이 현실적 갈등에 파장을 미치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소설은 젊은 청년들이 100여년간, 공권력의 횡포 속에 수난 당해온 지역민들의 소통과 갈등 해소의 장으로 마련하는 진혼곡을 울리는 것으로 역사와의 화해를 시도한다.

역사의 맥을 타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전승되어오면서 얽히고 설켜 응이로 가슴에 박혀버린 한을 사회적 차원에서 풀면서 푸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맺는 것이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 번뇌 씻어주는 '인생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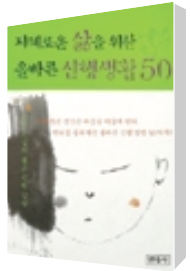
**심경으로 깨닫는 인생 행복**  
동방문에 지음 | 남종진 옮김  
다산미디어 펴냄 | 1만2000원

“舍利子(사리자), 是諸法空相(시제 법공상), 不生不滅(불생불멸), 不垢不淨(불구부정), 不增不減(부증불감)~ 제자들이여, 형상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모두 텅비어 있고 바뀔 수 있으나, 사라지지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심경>중에서

<심경>은 원래 <반야바라밀다심경>이라고 불리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 처음으로 쓴 글이다. 짧은 분량이지만 글자 하나하나마다 주옥같은 불교의 핵심이 명쾌하게 담겨 있다. 바로 '공(空)' 사상이다. 만사는 모두 '공'이니 먼저 나를 비우라는 것이다. 마음이 비워지면 지혜가 생긴다고 강조한다.

원문과 함께 상세한 해석을 곁들인 이번 책 속에는 평화, 희생, 광등, 욕망의 역제를 이야기 하며 생명을 귀히 여기고 선행을 행하며 번뇌를 씻어주는 가르침이 들어 있다. 언제든지 마음속의 갈등과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손에 금방 잡히는 가까운 곳에 두며 곱씹어 볼만한 인생 지침서 같다. 김주일 기자

## 초심자들을 위한 불교 입문서



**지혜로운 삶을 위한 올바른 수행생활 50**  
남전 스님 지음(민족사 펴냄) | 8500원

“스님,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는 반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소는 가급적 조용한 곳을 택해 하루에 가장 집중하기 좋은 시간에 하세요. 절에서는 스님들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면 되며, 개인적으로 할 때는 삼귀의, 참회, 발원 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은 불자들이 수행생활을 할 때 가장 궁금해 하는 50가지를 주려 남전 스님(화성 운주사 포교국장)이 설명해 놓았다.

질문은 “초보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참 불자가 될 수 있나요?” “열반은 죽은 인가요?” “불교에 많은 종파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등이다. 불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질문들이 대다수여서 초심자들이 불교의 기초 상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김주일 기자

## 고운 우리말로 풀어쓴 금강경



**금강경-나 없는 지혜, 나 없는 자비**  
이포 옮김 | 호미 펴냄 | 1만원

<금강경>은 대승불교를 대표하며 그 기본을 이루는 경전이다. 육조 혜능 선사 이래로 중국 선종에서 가장 중시해 온 경전이기도 하며, 특히 선(禪)을 기본 종지로 삼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의 경전이다.

이렇게 중요성이 큰 경전인 만큼 그동안 <금강경>은 해아릴 수 없이 많이 번역됐다. 하지만 대다수 번역본이 한문이 갖고 있는 고운한 어투를 깨뜨리지 못해 이해하기가 녹지 않았다.

이번에 한글로 <금강경>을 번역한 이 책은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의 운율을 중시해 번역한 새로운 형식의 번역서이다. 구마라집본을 밑본으로 한 이 책은 경전의 전문 용어를 일상 생활속 용어로 풀어 풀었으며, 불필요한 조사나 토시를 없앴다. 또한 다소 구절을 되풀이 하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숨은 행간의 뜻을 해석해 놓아 읽기가 편하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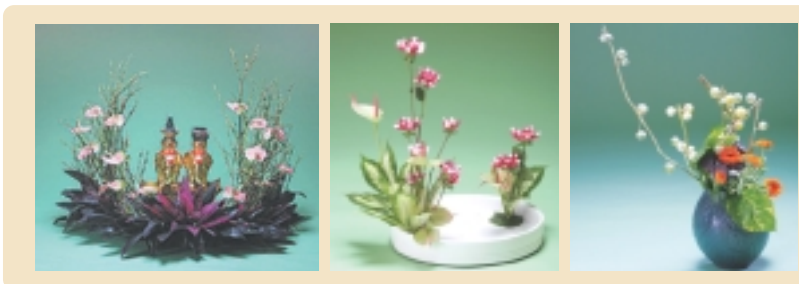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문관에서 꽃이 피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2	연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황호	미움의 숲
3	정진	지광	랜덤하우스
4	하루 108배 내음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이름미디어
5	은둔	조연현	오래된 미래
6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
7	절을 기차에 질하는 법	청연	벗디의 마을
8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양리 브뤼넬	솔바람
9	바람 속 이야기	동학사편집실	운주사
10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기초에서 창작까지 전통 꽃예술의 실기와 이론

# 한국 꽃예술과 불교



꽃예술의 이론과 실기를 꽃꽂이를 배우는 사람과 지도하는 사람 그 누구든 활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에서 창작까지 전 과정을 분류하여 수록했습니다.

- 꽃예술 과정 1-2 : 1)소재에 대한 기초기법 2)화기의 선택 3)수반꽃이와 병꽃이의 요령 4)수반 꽃꽂이의 19가지 형과 병꽃꽂이 14가지 형 외 각 화형에 대한 작품과 상세한 해설
- 꽃예술 과정 3 : 자유 창작의 기본 원리인 선·면·체·색 등 다양한 구성 기법을 21가지로 분류
- 꽃예술 과정 4 : 1)불전공회와 역사적인 유래와 함께 이해를 돕는 설명 2)의식 및 재래명절을 세분하여 작품과 함께 해설



보림 지면 스님

한국 꽃꽂이 협회(금연중앙회) 1972년 입문  
현재 국내전 및 국제전 30회 이상 출품  
전국 불교꽃이 연구 및 불교꽃예술원 원장(현)  
전국 불교꽃이 연합회 1988년 창립 및 초대회장 역임  
봉성사 승가대학 10년간 출강  
2005년 7월 European Floral Art Course 과정 수료  
한국회예디자인학회 이사(현)  
(사)한국꽃꽂이협회 이사 및 보림꽃예술중앙회 회장(현)

구입문의: **기원사 02)919-0034**

꽃꽂이 강의 (초, 중, 고, 사범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3시 기원사 ●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2시 불교꽃작품연구  
\* 책을 구입하시는 분은 3개월 무료로 강의 수강 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문인분)

##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범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